

土種 홍화씨
 발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리 발양산 재배의 적지
 ● 발양산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종적 종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산문박의 詩 詩조시인 정완영 翁

약력
 · 1919년 경북 금릉 생, 호 백수(白水) · 1946년 통인지 오동 발간 · 1963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해비리》 당선 ·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조국》 당선
 · 1968년 시조시인협회 부회장 · 1978년 문인협회 이사 · 1979년 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 1982년 시조시인협회 회장 등 취임
 · 저서 《시조창법》 《고시조감상》 《시조시학》 《探春詩》 《墨墨圖》 《失日の
 銘》 《산이 나를 따라와서》 《꽃가지를 흔들듯이》 《백수시선》 《蓮과 바람》 《蓮
 보디 푸른 물》 《오동일 그늘에 서서》 등

“등불 밝히는 심정으로 詩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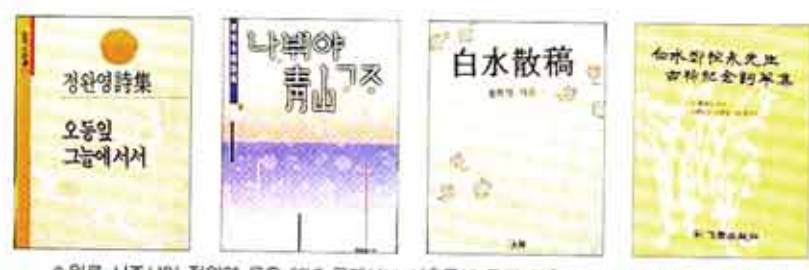
“사람이 외로우면 절을 지어 암(巖)을 두고, 하늘이 외로우면 숲이 심어 숲 가꾼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한동안 묵안삼매에 들었던 백수(白水) 정완영(81)옹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학처럼 고고하면서도 기품이 있다.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 자체가 운율을 지닌 시조 그 자체다.
 이 땅의 정신과 정서와 삶의 가락이 만들어진 시조 짓기에 평생 전념하고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조시인 정완영 옹은 “사람은 늙었지만 시(詩)는 어립니다. 오늘도 3점6구 속에서 헤메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말로 60년 시작(詩作)활동을 간추린다.
 시조는 그 본태가 우리 역사의 근간이며 한국문학의 종가이다. 민족정서의 총화이기 때문에 그 속내를 한 사람의 한 생애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미로. 아니 천지의 말씀을 더 내려앉혀도 오히려 그 그곳이 차지 않는 명기(名器)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일까.
 고향 자연 그리고 사할을 주로 시조에 담아 온 정완영은 시조를 사랑하고 시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하고 불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詩=言+寺’...시는 부처님 말씀
 “시정신 사라지면 아수라세계”
 “시의 행간 읽다보면 망상 털어내”
 “순리대로 자유롭게 경허하게...”**

“시(詩)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말씀(言)과 절(寺)입니다. ‘말씀의 도량’으로 시는 곧 부처님 말씀이란 뜻이지요. 《법구경》을 비롯 모든 경전들이 계승되어 되어 있습니다. 구경에는 시와 불교가 하나가 됩니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가 가장 높은 시적 경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이상적인 만다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자체는 시의 정서이며 매정함이 무궁무진합니다. 시의 정신이 불교인 것처럼 부처님의 웃자락은 넓습니다.”
 인간의 드높은 정신세계를 관조하고 자연과 정서가 혼연이 되고 승화되어 나온 시를 읽다 보면 자절로 부처님 가르침이 혼소되듯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정완영 옹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고향인 사할마다 시비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
 “절 입구에 백가지 풀이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백초시불모(百草是佛母)’를 새겨 놓으면 누가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겠습니까. 자연이 엄숙하게 되지요. 이것이 불교이지 법문만 듣는 것이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적인 내용

의 시 한수가 한 인간의 생애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고 만인을 교화시키며 또 그 자체가 화두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시조를 하다보니 시의 매정함이 많은 불교에 귀의하게 됐고, 그속에서 시정신이 불교정신이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불교정신은 경전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대로 실천수행하는 사람이 수좌이고, 잘 우러날 줄 아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시인은 진인(眞人·참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왜일까. 시는 부드러움, 여유, 타이름, 치유라는 근본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과 시정신이 사라지면 세상은 복잡한 아수라의 세계가 될 수 밖에 없다. 시를 많이 읽고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

람이 많은 사회가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이고 그런것은 곧 정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살이는 문명이 발달할 수록 여유가 없어져 되지도, 옛날에는 한끼 양식만 있어도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10년 먹음 양식이 있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시정신이 생활에서 상실됐기 때문일겁니다. 또 시는 거칠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부드럽게 순화하고, 생활에 여유를 주며, 정신에 든 병을 맑음히 치유해 줍니다.” 이처럼 그는 시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문화장르로 꼽는다.
 “말로만 쓰는 것이 시가 아닙니다. 말과 말의 행간에 침묵을 더 많이 심어주는 것이 시조입니다.” 정형시 시조는 불과 4자 안팎이다. 하지만 그 행간에 숨어있는 수는 무궁무진하고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수를 함축해 내기 위해서는 온갖 탐욕과 망상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번뇌를 없애고 또 없애는 수행자처럼, 시인도 각고의 수행을 통해 함축적인 시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탄생한 한편의 시는 읽는이에 따라 각자의 화두가 될 수 있다. 정토를 일구는 갈로법문도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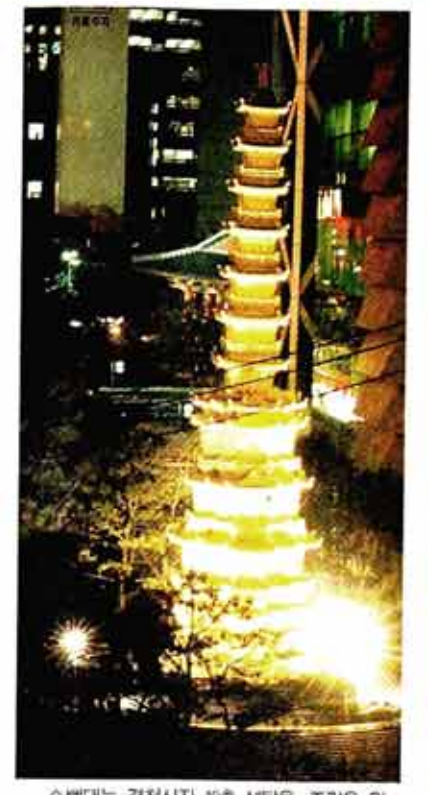


○원로 시조시인 정완영 옹은 6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등단 이후 60여 년동안 《오동일 그늘에서서》 《나뉘어 산이 그늘》 《백수시선》 《고회기념시집》 등 10여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냈다.

산이 나를 따라와서
 桐華寺 갔다 오는 길에
 산이 나를 따라와서
 도량광만한 피로 풀
 이쁘고 들어선 차집
 딱히 끊어 주는 차가
 丹楓만을 품고 있다
 산이 좋아 눈을 감으신
 부처님 그 無量壽
 머리에서 서리를 써며
 귀로 되는 楓葉 소리여
 어스름 낀 黃昏도
 허전한 頂 頂 올라
 친구여, 우리 손 들어
 작별하는 이 하루도
 天地가 짓는 일들의
 풀잎만한 몸짓 아닌가
 다음 날 寒해의 銀鬚을
 다시 피려 또 올게나

“내적인 수행과정을 거치면 선사들처럼 오묘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지요. 이때가 되면 시적 감흥은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 사랑스럽게 안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순간 문자를 매개체로 종이에 옮겨 놓는 것이 시인이지요.”
 옛 선사들의 오도송을 읽고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그런 오도송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각자(覺者)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을 통해 시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런 깨달음이 이르기 위해 시인은 끊임없이 내적인 수행과 정화를 통해 우주의 진리를 자유자재로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완영 옹의 아호는 백수(白水). 글자의 뜻

대로 하면 ‘흰 물’이다. ‘검은 물’이 오염되었거나 혼탁한 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흰물’은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물, 아니 세속의 때를 씻어내는 물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백수 정완영 옹은 ‘흰 물’처럼 맑고 조온하고 정갈하다. 미치지 않는 밝음처럼 정갈함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52년 동안 매일 일기 형식의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그의 심적 정화 작업으로 인해 태동한 시어들은 혼탁한 거리의 가음을 맑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른 시인의 시는 소리로 화하여 꽃이 되고, 꽃이 그대로 세상이 되고, 그것이 온몸 삼임을 깨닫는 조화모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는 속세인에게는 알 듯도 하고 모름 듯도 하지만 뜻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처럼 환하게 다가 오는 것이다. 마치 확률대오한 선사들의 오도송처럼.
 “시를 쓰던 날들은 나름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마다에 등불 하나씩 달아 준다는 심정으로 할 사투고 정화하고 지성을 닦았습니다”라는 그는 196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해비리》로 등단. 《산이 날 따라와서》 《蓮과 바람》 등 1천여편의 시조를 썼다. 한국 현대 시조 문학에서 그의 위치는 우뚝하다.
 그의 시는 고향에 대한 동경과 지극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향한다. 인간의 고향이 속세의 현상화적인 것들과는 멀리 있는 것이어서 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문답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버려진 인간성을 다시 찾고자 흐트러진 심중에 늘 불심을 다지며 시상에 빠져 있다. 그의 이러한 휴머니즘은 자연의 목소리이며 곧 부처님의 목소리이다.
 “문지방에 드러온 산그림자 아무리 뜻이 안나가고, 미당에 드러온 달그림자 아무리 비로 쓸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저 순리대로 경허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가슴을 맞아 조계사 근린 수송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원로시인 백수 정완영 옹의 심경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배대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조각은 원각사지 10층석탑을 차용하여 철과 FRP를 재료로 만들어진 탑. 서울 중구(시가지)의 종로타워 옆에 최근 세워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밤거리 밝히는 종로타워 옆 대형탑

서울 종로 종각사거리(구 화신백화점) 옆에 대형탑이 세워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각가 최정화씨가 ‘세기의 선물’이란 주제로 조성한 이 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탑인 경천사지 10층석탑(국보 86호)과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2호)을 혼합한 형태. 합성수지와 철을 재료로 조성했으며 13.5m의 황금빛 탑은 밤마다 조명을 받아 화려한 서울거리를 더욱 환하게 하며 도시민들의 정신적 위안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정화씨는 “석탑의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전통을 보여주기 위해 건립했다”고 조성배경을 설명했다.
 고영배 기자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뒤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액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국민에게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활용하여 ‘순금카드’에 세계서 상공회(실용신안등록 No.04266호) 했다. 전만복과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심보이 큰 관공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에 달마도를 태워 예쁜 용품용 신형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박막코팅함으로써 벗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할이나 불자들의 봉사 보시용으로 다양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 물론 앞뒷면에 인하는 사진, 그림, 글씨, 부처, 이등 등 어떠한 문양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장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켓트 구비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후부분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무제한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프구역자(20cm×20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대형 용품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인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처: 한국 지.앤.새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 영입점 모집